http://www.stellahouse.kr

스텔라

2023. 12. 31. Vol. 28

STELLA
Tel. (032)864-0055 Fax. (032)864-0051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투명한 유리창처럼 마음을 갈고 닦는 선함과 순수함으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습관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다 보면 매일 매일 감사할 일들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 올라 맑은 물 한 동이씩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퉁명스럽지 않은 다정함으로 남을 배려하며 그 누구도 모질게 내치지 않는 마음, 자신의 몫을 언제라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니다 보면 늘 감사에 가득찬 어질고 부드러운 눈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도취, 독선적인 오만함에 빠지지 않는 겸허함과 온유함입니다. 남을 섣불리 비난하기 전에 그의 좋은 점부터 찾아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감사의 인사가 즐겨 부르는 노래의 후렴처럼 자주 새어 나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가끔은 슬프고 우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뜻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애쓰는 너그러움입니다. 남에게 우울을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밝은 쪽으로 시선을 두는 지혜를 구하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감사의 환한 미소를 띨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예민하게 깨어 있는 마음입니다.
게으르고 둔감한 마음의 하늘엔 감사의 별이 환히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사물들에 대해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만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걸 하루에도 몇 번씩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알아듣고 먼저 용서를 청하고 먼저 용서하는 그 마음엔 평화에 뿌리내린 감사가 늘 푸른 산처럼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하느님과 이웃의 도움을 청하는 빈 마음, 호흡하듯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 안에 열린 넓이와 깊이로 감사는 마침내 큰 사랑으로 이어지고 오늘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해인 수녀님의 산문집(감사하는 마음은)

Vol.28 Contents

STELLA

STELLA

04 생활인 글
08 후원자 글
12 스텔라의 이모저모
20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22 후원자 · 봉사자 명단

CoverStory
스텔라의집 아기 천사들

발행인 조영희
발행처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스텔라의 집
www.stellahouse.kr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26번길 40
(문학동) 유일아트빌
전 화 032) 864-0054~5
기 획 스텔라의집
편 집 (주)도서출판 디자이너클럽
032) 613-6352

새 출발 전, 내 인생을 돌아보며!

글 **한아름**

나는 1993년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고 아빠와 엄마, 오빠 그리고 나까지 네 가족이 살았다. 내가 4살이 됐을 즈음, 아빠의 외도로 인해 부모님은 이혼하고 우리는 바로 새엄마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새엄마는 20대 초반으로 아이 한번 키워보지 않은 젊고 어린 사람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언젠가부터 나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물고문, 바늘로 입술 찌르기, 밟아서 기절 시키기, 친척들 앞에서 뺨 때리기 등 아직도 학대 받던 모든 순간이 잊혀 지지 않는다. 그래도 예쁜 옷과 선물, 교육, 주말 나들이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써줬다. 매일 눈치 보며 자라던 나는 사춘기에 접어든 중2무렵 가출을 했다. 밖에서 친구들과 굶고, 춥고, 졸린 나날들을 보내는 것이 집에 가는 것보다 나았었다.

2년가량의 가출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새엄마의 학대는 멈췄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눈치 보며 자란지라 대하기 어려웠고 새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 새엄마와 싸우는 아빠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다. 이건 아직도 아빠에게 미안한 부분이다.

학교는 중학교부터 다시 복학하여 다니기 시작했지만 같은 복학생 친구들과 사고 치며 놀기에 바빴다. 고등학교 3학년, 3월 2일 새 학기가 됐을 때 '너희는 대학이라도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학생 주임 선생님의 말씀에 정신차리고 대학에 가겠다며 다짐했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10일, 아빠가 목을 매 자살했다. 학대를 방관하고 음주로 인한 가정 불화를 만들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슬픔을 묻어두고 내가 원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에 매진했다. 학교에 소문이 났다. 한아름이 공부를 한다고. 결국 원하는 대학 사회복지과에 합격했지만 예치금 문제로 합격은 취소됐고, 아빠의 죽음 후 간간히 집에 들르던 새엄마는 연락을 안 받기 시작하다가 결국 아예 연락을 끊었다.

다시 나의 방황은 시작됐고 술에 빠져 살다가 아빠의 첫 제사 날짜도 잊은 불효녀 타이틀도 달았다. 그러다 어찌어찌 친 엄마와 연락하여 춘천에 가서 살게 됐다. 2년을 같이 살았을까? 친 엄마는 갱년기를 이유로 나를 쫓아냈다.

나는 혼자서 연고 없는 인천으로 오게 됐다. 그때부터 미래 없이 매일 먹고 놀며 당장 죽어도 상관없다는 듯 막 살았다. 그렇게 7-8년가량의 허송 세월을 보내는 중에 아이가 생겨버렸다. '지우면 돼, 입양 보내지 뭐, 내가 죽으면 해결돼' 라는 생각으로 나도 아빠처럼 목을 매 보기도 했지만 실패했다. 목에 피 멍이 들었다. 이렇게 아프고 무서운데 아빠는 어떤 마음으로 해냈지?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던 걸까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며 태동이 느껴졌다. 물고기가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내 배에 생명이 숨 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이상했다.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내가 키워야겠다 라는 갑작스러운 책임감이 생겼다.

여기저기 검색해보다 자모원이라는 곳을 알게 됐다. 자모원에 바로 입소하여 그때부터 뱃속 아이를 위해 몸 관리를 시작했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는 나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 주려 노력하셨다.

2021년 1월 19일, 오랜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한 우주, 임신한 기간동안 제대로 먹지도, 건강을 챙기지도 못했던 탓에 아이에게 혹시 장애가 있진 않을까 하는 불안이 컸다.

그 죄책감으로 태어난 직후의 우주에게 반갑게 인사해주지 못했다. 평생 후회되는 순간 일거다. 우리 우주는 그런 나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진짜 정말 너무 예뻤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천사가 태어났지? 하느님께서 이 천사를 위해 나를 살려 두신 걸까? 아니면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늘의 천사를 내게 보내주셨을까? 생각했다.

우주가 생후 30일이 됐을 무렵 스텔라의 집에 입소했다. 이 정림 사회복지사님과 첫 상담을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쏟아졌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불안한 마음을 알아주심에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다. 얼른 이 곳에 적응하여 멋지게 자립하고 싶어 졌고 다시 사회복지과 진학을 목표로 잡게 됐다.

대학 진학 전 2021년도는 스텔라의 집에 적응하며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애썼다. 컴퓨터 학원에 다니며 MOS, ITQ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정폭력 상담원, 성폭력 상담원 교육까지 수료하게 됐다. 이 과정동안 우주는 돌봄 선생님들과 스텔라의 집 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쑥쑥 자랐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나는 이때도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 잘 적응하여 살고 있는 척했던 것 같다. 그 불안한 마음이 우주에게는 티가 잔뜩 났지만 말이다.

2022년도 3월, 난 경인여대 사회복지과에 진학했다. 이로 인해 우주는 생후 15개월만에 어린이집에 입소했다. 어린이집 알림장 속에 항상 울고 있는 우주의 사진을 보며 내 욕심에 우주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다. 내가 부족한 탓이었다. 우주도 저렇게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데, 나도 우주의 노력에 응하기 위해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내야만 했다.

사회복지과에서의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적을 잘 받기 위해 노력했고 교수님들께도 인정받았다. 저번 학기는 학점을 4.45점이나 받을 수 있었다. 운전 면허도 1종, 2종 모두 취득하게 되어 너무 기뻤다.

학교 졸업을 앞두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나는 그저 전문 학사 학위만 얻은 것이 아니라, 현상 이전에 원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나, 그리고 나 이외의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공감할 수 있는 관점들이 생기는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까지 얻게 되었다.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이제 나는 스텔라의 집에서의 3년 만기 퇴소를 앞두고 있다.

얼마 전 LH전세집도 계약했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스텔라의 집에서 3년간 도움만 받고 살다가 이제는 나 혼자 오롯이 아이를 키우며 살아나가야 하는 것에 두려움이 앞서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용기를 내 볼 것이다.

원래는 퇴소한 후에 사회복지 공무원 준비와 대학교 편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부를 더 하고 취업은 좀 미루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자립을 앞두고 보니 공부만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시간이 좀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고민 끝에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됐다.

2024년 1월 17일 퇴소한 후 바로 학원에 다니며 컴퓨터활용능력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과 3학년 편입을 하고 사회복지 기관에 취업을 하여 경력을 쌓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따겠다는 계획이다.

과연 내가 일과 육아 그리고 학업까지 세 가지를 함께 잘 병행할 수 있을지, 어느 하나에 라도 소홀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따르긴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여 도전해보기로 했다.

친구가 나에게 '세상에 못하는 건 없어 안 할 뿐이지.'라는 조언을 해준 것도 도움이 됐다.

앞으로 스텔라의 집을 떠나 자립하고 살면서 나와 우주의 미래가 얼마나 발전되고 찬란해질지, 또 우리 우주가 얼마나 멋지게 성장할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우주에게 내 어릴 적 아픔을 대물림 하지않기 위해, 우주 스스로 자신의 존재 자체가 큰 축복이며 행복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 노력 또 노력할 것이다. 나의 인생에 정말 크고 좋은 변화를 선물해준 스텔라의 집과 항상 곁에서, 뒤에서 지켜 봐주며 도와주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잘 살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사랑이 핏줄이다

글 **정현숙** 마더 데레사

서른 번째 항암을 하고 왔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입원과 퇴원에 동행한 사람은 내 핏줄이 아니라 나의 짝꿍 친구다. 비혼으로 살고 있는 나는 유일한 혈육이 다섯 명의 형제자매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무심하다. 중병환자를 떠맡을까 두려운 탓인가?

대신 나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내 친구는 내게 더없이 지극 정성이다. 병원 출입은 물론이고 매일 음식과 운동, 그리고 나의 마음까지도 세세히 신경 써 준다. 진심으로 고맙고도 고맙다. 그리고 또 다른 나의 지인들, 선배와 후배들도 병원 스케줄을 잊지도 않고 전화해 준다. "힘내라. 기운 내라. 파이팅"을 외치며... 가끔씩 생각에 빠진다. 뭔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내가 수십년 동안 재물과 정을 나누고 산 이들은 오로지 형제자매였는데 그들은 박정하고 엉뚱한 이들에게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르 3,33:35) 의아했던 성경 문구가 이제야 이해된다. 핏줄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핏줄인 것이다.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육남매의 장녀였다. 이른바 K-장녀. 아버지의 가정에 대한 무심함과 어머니의 악착같은 생활력과 교육열 덕분에 그 시절 내 또래에서는 드물게 대학을 마쳤다. 교육대학. 물론 가고 싶은 대학은 따로 있었지만 두 살 터울로 자라고 있는 동생들의 앞날도 생각해야 했다.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고 고3 말에 자퇴하라는 아버지의 폭언 속에서 대구에 사시는 외삼촌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2년만 키워 달라고. 그렇게 졸업한 교육대학이었다.

전기도 전화도 없는 오지에 발령을 받고 나 혼자 살기도 빠듯한 박봉의 시골살이가 시작됐다. 집에서는 군대에 가야 했던 바로 밑의 남동생과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이어져 전부 학생이었던 동생들의 학비가 엄마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갓 발령받은 고사리손이라도 엄마를 도와야 했고 동생들의 앞날도 생각해야 했다. 그렇게 38년. 그들의 학자금과 좀 더 윤택한 생활과 동생들의 결혼과 자립,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병환이 긴 세월 K-장녀로서의 족쇄를 스스로 차게 했다.

부모와 형제자매와 함께하는 생활은 뿌듯했고 즐거움이었다. 내 인생의 전부였다. 낡은 주택에서 시원스레 큰 아파트로 옮기자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했고 동생들과 조카들은 좋아했다. 부모님이 계시는 내 집이 동생들의 본가였고 친정이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챙겨주고 나눠주고 모든 힘을 덜게 해 주고 싶었다.

그렇게 살았다. 돈도, 시간도, 노력도 아까운 줄 몰랐다. 그런데 난소암! 마음이 교만해졌던 탓인가? 나와 내 가족밖에 몰랐던 탓인가? 건강 검진에서 발견된 암 덩어리! 이미 전이가 한참 진행된 4기! 종양이 커서 항암을 하고 수술을 해야 했다. 1년에 걸친 항암과 수술, 또 항암, 그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장폐쇄와 장염, 담석증, 수없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지옥의 시간이었다. 너무 억울했다. 분했다. 나를 위해 살아본 적도 없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해 보지 못했는데... 수만가지 생각이 오고 가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1년의 치료가 끝나고 나는 달라졌다. 병휴직을 했던 학교는 명예퇴직을 했고 하고 싶은 것을 시작했다. 일본어 강의에 등록을 했고 수채화 화실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을 생각해 보고자 전국 성지 순례를 시작했다.

5년여에 걸친 혼자만의 시간, 인천에서 시작하여 제주도, 추자도까지 이어진 자성의 시간, 성장의 시간이었다. 내가 받은 수많은 사랑을 생각해 본 시간이었다. 1년여 투병 중에 받은 현실적 도움과 관심, 위로, 수십명의 동료와 선후배, 지인들의 사랑, 절망과 고

통 속에서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버텨낼 수 있었을까? 핏줄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핏줄이었다.

첫 번째 기부는 장학금이었다.

보험사 암 진단금으로 나온 일천만원은 왠지 쓰고 싶지 않았다. 마침 본당 신부님이 장학회를 만들고 싶다 해서 냉큼 1호로 기부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미사 공지 시간에 들은 미혼모 대학생의 사연. 본인은 대학 입학금을 마련할 길이 없고 신생아기는 선천성 병의 악화로 입원해야 한다는 사연이 며칠 동안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가슴을 억눌렀다. 신부님을 통해 입학 등록금을 보냈다.

후일 누군지도 모르는 그 엄마가 자립을 했고 아기도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전해 듣고 내 혈육의 일같이 기쁘고 뿌듯했다. 예전에 전철로 통근을 할 때 구걸을 하는 사람을 보면 외면을 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것같아 보이는 그들에게 한푼 보태주는 것이 오히려 구걸을 동조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은 멀리서 그들이 보이면 지갑을 꺼내 얼른 내 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엄청난 절망과 고통을 겪어 보았더니 비록 손톱만한 관심과 도움일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사 조금, 사랑이 왜 핏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깨달아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 주었어요."

"정 선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해서 그런거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마다 정말 부끄러웠다.

'내가 잘한 것은 내 부모와 내 형제자매에게 뿐이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정말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받았으니 갚아야지.'

교육대학 첫 입학금은 초등학교 은사님이 주셨다. 외삼촌은 준비가 안 되었으니 입학금은 네가 가지고 오라고 하셨기에 형편이 어려웠던 내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주셨다. 갚아 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졸업도 하기 전에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분에게서 받은 것은 평생 은혜였고 빚이었다. 스텔라의 집에 기부를 선택한 것은 내 선생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갚음이다. 그분에게 받은 것을 대물림하는 거다.

세상에 안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결국 이것도 사랑이 핏줄이라는 증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앞으로도 이어질...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살다 가면서 단 하나의 생명도 내놓지 않은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이다. 세상에 한 알의 밀알도 씨뿌리지 않고 세상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 대한 내가 받은 보속이다.

마지막 하나는 미혼모를 돕는다는 것은 엄마와 자식, 두 몫의 인생의 키움이라고 생각해서이다. 나의 손톱만한 관심과 사랑도 그들의 삶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길다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아온 것이 직접적으로는 내 부모와 혈육, 친족의 사랑 덕분이겠지만 내 주변에 나와 연관된 많은 지인들과 알지 못하는 무수한 타인들의 사랑도 다양한 형태로 주고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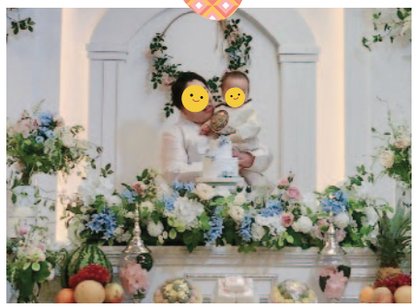
한번 치료되었던 난소암은 6년 뒤 다시 재발되었고 이미 퍼질대로 퍼진 종양들은 단지 항암제로만 적당히 눌러 주면서 살고 있다. 항암 부작용으로 견디기 힘들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내 삶이 때로는 비감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내게 한없이 따뜻한 짝꿍 친구,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웃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나의 친구, 지인들. 그리고 일면식도 없었던 스텔라의 집 엄마들과 아기들이 보내준 미니 앨범 속에 사랑스런 모습들과 손편지들. 이 모든 사람들이 내 혈육이고 핏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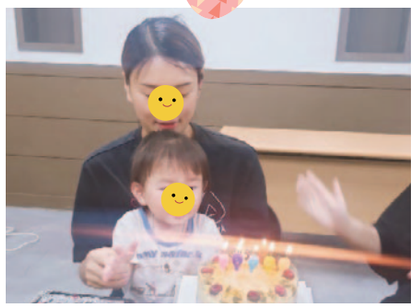
사랑이라는 핏줄로 연결된 세상에서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한 평화를 누리고 있다.

생일을 축하해요

일년 중 가장 특별한 오늘,
스텔라 가족들의 생일을 많이많이
축하해주세요!



ㅇㅇ 왕자님의 첫돌을 축하합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렴 ~♥



ㅇㅇ 왕자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렴 ~♥

ㅇㅇ 왕자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자라렴 ~♥

ㅇㅇ 왕자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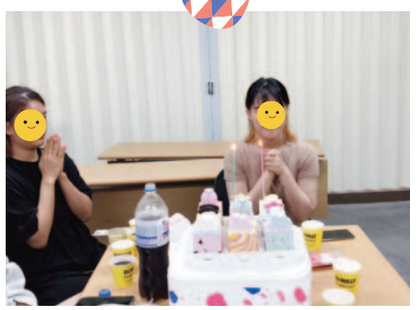
ㅇㅇ 왕자님 & ㅇㅇ 맘 생일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

ㅇㅇ 공주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미소가 이쁜 공주님 홧팅!♥

ㅇㅇ 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ㅇㅇ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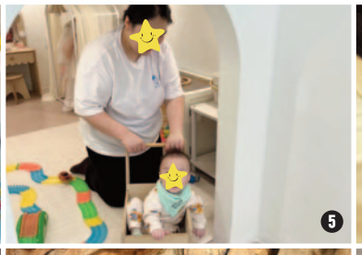
ㅇㅇ 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미소 가득한 나날 보내세요 ~♥



ㅇㅇ 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죠! ♥

가족 관계개선 사업

❶ 설명절
❷ 추석명절 외식
❸~❾ 유아 신체발달놀이
❿ 종무식



운영사업

❶ 인천3개시설 종사자 직원연수
❷ 사업평가회의
❸ 생활지원사업
❹ 아이돌봄사업

상담사업

❶ 도형심리 집단상담
❷ 내로남불 집단상담
❸ 애니어그램 집단상담
❹ 심리훈련상담

문화 여가활동

❶ 꽃에희망 원예치료
❷ 원예치료
❸ 영화관람 후 나눔
❹ 몬테크리스토 뮤지컬 관람
❺ 반지공예_ 나만의 작품
❻ 스트레스 타파 활동
❼ 행복의 멜로디 미술관람
❽ 베토벤 뮤지컬 관람
❾~⓫ 제주가족캠프

자원봉사 활동

❶❷ 현대모비스 인천부품영업소 자원봉사 활동
❸ 윤현중님 재능기부

사후관리 사업

❶ 가족 미술상담
❷ 산타행사
❸ 성인 집단상담
❹ 설명절 행사
❺ 아동 집단상담
❻ 삼척 가족캠프
❼ 강화 캠프
❽ 종무식 행사
❾ 종무식 식사

부모교육

❶ 경제교육
❷ 부모교육
❸ 이유식 만들기 생활교육
❹ 인권교육
❺ 성교육
❻ 약물오남용 교육
❼ 양육코칭교육
❽ 폭력 학대 예방교육
❾ 재난 안전교육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지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밝은 앞날을 준비하고 희망하는
엄마와 아기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힘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펴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방법 우리은행 : 1005-701-096476
예금주 : (재)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국민은행 : 237201-04-136742
예금주 : 인천교구스텔라의집
농 협 : 351-0056-3198-13 / 예금주 : 스텔라의집

물품후원 생필품, 아기용품 , 옷 등

혜 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전화번호 032-864-0055 / Fax 864-0051

오시는길 지 하 철 : 1호선 주안역 버스 65번, 65-1번,
신동아3차 하차 등대교회 방향
시내버스 : 구월동에서 111-2번
문학초등학교 앞 하차, 등대교회 방향

Thank you!

스텔라의집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정성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1월~12월)

건이강이봉사단 상품권후원

김유빈님 물티슈후원

김수찬님 과일후원

농협 목우촌후원

세븐그라운드 아기로션후원

숭의동성당 김치후원

숭의동성당 쌀후원

옥련책빵 가방, 쿠키후원

인천관교여중 손수건후원

인천남부지사 건강보험공단
키즈선물상자후원

인천상공회의소 상품권후원

인천약사회 아기로션 외 후원

인천여의사회 상품권후원

인천지방법원 생필품후원

정현숙님 고기외식 후원

(사)체인지메이커 기저귀후원

한살매입시전문학원
후원금후원

현대모비스 인천부품사업소
명절 상품권 3회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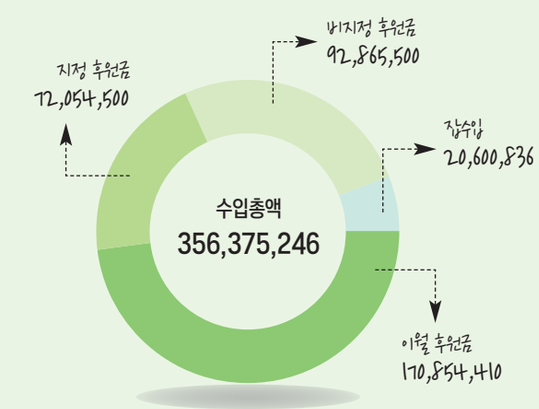
나눔은 또 하나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2023. 1 ~ 2023. 12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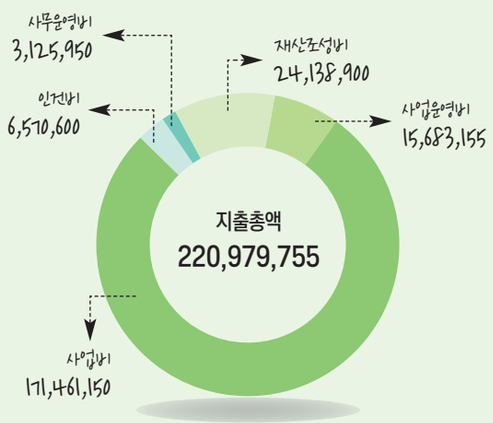
후원금의 종류	금액
이월후원금	170,854,410
지정후원금	72,054,500
비지정후원금	92,865,500
잡수입	20,600,836
계	356,375,246



■지출

사용내역	금액
인건비	6,570,600
사무운영비	3,125,950
재산조성비	24,138,900
사업운영비	15,683,155
사업비	171,461,150
계	220,979,755

※ 지정후원금은 주거자립비 지원 및 장학금 용도임.



후원해주신 분들

● 개인

강*모 강*석 강*선 강*자 고*희 공*재 공*희 권*희 김*겸 김*규 김*남 김*례 김*민 김*선 김*수 김*숙
김*숙 김*순 김*아 김*애 김*자 김*재 김*중 김*진 김*찬 김*현 김*현 김*호 남*국 노*경 도*현 레오
루피나 류*석 류*영 리더부동산 중개법인(한*이) 박*구 박*남 박*례 박*숙 박*숙 박*숙 박*신 박*옥 박*욱
박*윤 박*윤 박*임 박*자 박*진 박*진 박*형 방*수 배*모 범양플랜트(조*업) 변*우 삼양개발(전*희)
서*순 서*원 서*주 성*경 성*자 성*정 성*환 손*진 송*찬 신*진 신*채 심*석 안*순 안*형 양*나 오*정
원*훈 위*화 유*경 유*경 유*근 유*분 유*순 유*원 유*월 유*희 윤*미 윤*식 윤*옥 윤*은 음*희 이*권
이*민 이*복 이*섭 이*아 이*애 이*연 이*옥 이*옥 이*용 이*윤 이*자 이*환 이*희 이*희 임*기 임*연
임*옥 임*자 임*자 장*귀 장*자 장앤탑내과재활의학과의원(장*숙) 전*서 전*탁 정*기 정*나 정*숙 정*영
정*진 정*하 정라파엘라 조*순 조*자 조*현 조*희 조*희 지*자 청라치과의원 (나*찬) 최*름 최*미 최*선
최*우 최*철 최*호 최*희 한*성 한*성 한*수 한*숙 한*원 한서기공(김*길) 허*령 현*정 현진건축사사무소(김*철)
홍*금 황*현 황*희

● 단체

(재)인천교구 (주)상도 (주)원알로이 (주)진명프리텍 (주)코밴 아이러브피플 (주)한살매 동서테크
사회복지법인 대덕복지재단 숭의동성당 이진숙소아과 인천공동모금회 인천여의사협회 제물포성당
주안1동성당 중3동 빈첸시오회 청수성당빈첸시오 태양노브공업(주) 하나클럽 학익동성당사회복지회
한국순교성인성당 한국여자의사회 화인페이퍼(주)

물품 후원해주신 분들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관교여중학부모봉사단
김*빈
김*찬
롯데케미칼
미추홀구청
숭의동성당
옥련책빵
인천교구사회복지회
인천농협중앙회
인천지방법원
체인지메이커
한국순교성인성당
현대모비스(주)
(주)더마뮬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부지사
김*주
김*혜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세븐그라운드
우리금융미래재단
윤*훈
인천시여약사회
인천원예농협협동조합(이*용)
최*윤
트리플에이블(심*리)
(주)원알로이
글로벌쉐어
동서테크
세움누리의집
이*경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학산나눔재단

| 미션 |

스텔라, 꿈을 재창출하는 싱글맘들의 홈!

| 핵심가치 |

- 사람이 희망이다.
- 다르니까 조화롭다.
- 나는 내가 키운다.

스텔라의 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26번길 40 (문학동) 유일아트빌
Tel. (032)864-0055 Fax. (032)864-0051
www.stellahouse.kr

stellahouse